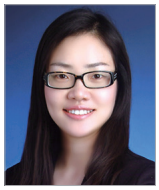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전통의학과 전통수의학

강 무 숙
동물제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2014년 대한수의사회지에 투고한 전통수의학에서 한약의 적용에 대한 글을 보신분들이 현재 전통수의학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에서 임상에서 한약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통수의학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매번 새롭게 튀어나오는 한의학용어와 한의학내용이 조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한의학 또한 3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나름의 의학체계를 갖춘 의학이기 때문에 양의학만큼이나 그 용어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짧은 글로 그 방대한 내용을 다 기술할 수 없지만 국내에 이렇다 할 전통수의학에 대해서 기술한 저서가 없는 상황에서 전통수의학의 총론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반수의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보았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전통수의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학의 존재가 아픈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내것만이 최고가 아닌 상대의 장점을 충분히 취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환자를 더 건강하게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한의학 탐사여행 (윤영주 편저, 도서출판 북)를 추천해드립니다.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자는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한의대를 들어가 의사이면서 한의사입니다.

책의 주 내용은 서울대 의대생들에게 한의학강좌를 하면서 양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갖는 한의학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풀어쓴 내용들이랍니다. 아마도 흥미롭게 읽어 보 실 수 있을겁니다.

1.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생체를 인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질병에 대한 관점과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보면 양의사와 한의사간에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만을 들어 비교를 하고, 그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치료방법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때론 배척이나 금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방법이 효과를 나타내도, 자신이 배운 이치에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연히 나타난 결과이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질병의 자연치유 과정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계와 자연계의 일부인 생체에 대한 인식론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질병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치료방법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좀 더 다양한 치료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질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좋은 예로 양의사들의 통증클리닉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기침이용 등을 들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세계를 인식론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의 인식론은 기본적으로 실체와 속성의 구분이라는 존재론적 전제에서 출발하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서양의학에서 바라본 생체는 세포, 조직, 장기 그리고 혈관과 신경이라는 실체로 구성되지만 동양의학에서 바라본 몸은 정(精),

기(氣), 신(神), 오장육부 그리고 경맥이라는, 서양의학에서는 실체로 인정되지 않는 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신, 경맥 등은 현대과학에서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체와 속성을 구분하는 서양의 인식론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동양의 인식론은 이해되지 않을 신화속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전통의학의 인식론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체를 하나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분석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주 자연과 연결된 전체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주 자연의 속성과 현상을 가지고 파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연에서 적용되는 여러 원리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 생리, 병리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양철학의 핵심개념의 하나이기도 한 음양, 오행은 한의학 이론에서도 중심에 놓이게 되는데요. 머리는 하늘을, 발은 땅을, 사지는 사계절을, 오장은 오행을, 열두 경맥은 하늘의 12시를, 눈과 귀는 해와 달을, 기쁨과 노함은 천둥과 번개를, 눈물과 콧물은 비와 이슬을, 치아는 땅의 금석(金石)을 본받는다는 식입니다. 서양의 중세에도 점성술에 따라 우주와 인체를 대우주-소우주의 상응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우주의 생성과 전면적으로 연관짓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몸의 구성요소를 형태적 · 물질적 요소로 분할하지 않는 대신 기능적 연관을 중시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해부도)에는 오장육부와 척추가 그려져 있을 뿐 각 부위의 정확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의학에서 보는 몸은 기능적 형태일 뿐 구조적인 형태가 아닌데요. 오장육부는 몸의 구성요소라기보다는 기능적 표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부분이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장기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동의보감이 각 장부를 떼어내서 본 오장도를 따로 그려 넣어 그 형태를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형태 자체보다는 기능적 연관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실체와 추상의 구별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몸은 정精, 기氣, 신神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구체적 물질이기도 하고 추상적 표상이기도 합니다. 정精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생식능력까지 포함됩니다. 기氣는 실제로 인체의 생리적 운용을 담당하는 기운을 말하며 기능이나 작용의 의미와 가까우며, 신神은 인간의 고차적인 정신활동과 생체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말합니다. 여기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 빗대어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며 어렵습니다. (정은 현대적 의미의 정액이기도 하지만, 오장에 모두 존재하여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다. 기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의 주체이기도 한다. 신은 현대적 의미의 심리현상을 주관하는 요소지만, 먹는 음식에서 생기며 오장에 나누어 분포한다. 몸과 마음을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근세 이후 서양의학의 사고방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해부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현상을 통해 자연현상과 생리현상의 실체를 이해하고, 몸의 다양한 기능과 오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현상을 통해 생체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대이후 서양의학과 동양 전통의학의 관점차이는 더욱 더 확연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언급한 전통의학(한의한)의 특징적인 인식론은 전통의학의 특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현대과학 입장에서 보면 비과학적인 이론과 학문이라고 비판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전통의학의 현대화라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인식론적인 차이에 대하여 이해가 된다면 동양의 전통의학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의학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정리하여 보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각각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누구도 자신이 배운 학문이 완벽한 학문이라고 말 할 수 없을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다양한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서 눈부신 발전을 하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보고 질병이 생기기전의 부조화 상태마저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치료가 안 되는 문제를 갖기는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전통의학의 최강점은 아마도 현대의학에서는 병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상태인 반건강상태 또는 건강과 질병의 중간상태를 병으로 바라보고 치료하는 것일겁니다. 전통의학의 질병인식은 기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때론 기능적인 이상이 기질적인 이상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강하여 반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므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즉, 요즘 밥맛이 없다. 잠에 빠지면 깨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 또한 한의에서는 질병으로 가기전의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를 합니다. 때론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전단계의 징후로 보고 치료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또는 침소봉대하여 한약을 팔아먹는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전체적인 면보다는 세포수준의 전기적 활동, 분자수준의 물질이 이동과 변화를 관찰함을 통해 생리와 병리를 설명하며 정신활동도 신경의 전기전도, 신경절달물질의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장부, 경락 등 부분적인 구조와 물질의 기능과 활동보다는 장부, 경락, 기혈진액이 어우려져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활동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2. 전통의학과 전통수의학

한의학이라 불리우는 전통의학과 전통수의학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원에 대하여 전통의학이 먼저인지, 아니면 두 학문이 같이 발전해왔는지는 수의학사를 연구하신 분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전통수의학은 생명체가 가진 면역력을 키워 병을 예방하는 한의학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축사육이 왕성해졌고, 고구려승 혜자(惠慈)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사부가 되어 말을 치료하는 기술, 즉 오늘날 수의학을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수의'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수의학은 삼국시대 인도로부터 도입된 수의술과 중국의 수 · 당 · 송 ·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했으며, 문종 때에는 수의박사라는 관직을 두어 최초 국가기관에서의 수의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다보니 소 등 가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수의학에 대한 고위관리들의 관심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조선시대에는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 '우의방(牛醫方)', '마의서(馬醫書)',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등 가축에 대한 각종 축산 관계서적이 발간돼 가축의 전염병과 질병을 한의학을 통해 치료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준 · 김사위 · 권중화 · 한상경에 의해 편찬된 '신편마의방우의방'에는 직접 복용하는 처방과 태워서 향기를 맡는 처방 등 우역(소에 번진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뜸을 이용한 처방도 있습니다. 또 조선조 이전에는 수의사를 '소침쟁이'라고 불러 전통 동물치료에서 침술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적의 편찬에도 불구하고 '소침쟁이' 등으로 기술을 천시하는 당대의 풍토로 말미암아 현대에 와서는 소에 침을 놓는 전통 수의사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현대로 오며 전래되는 침법들은 거의 사장됐지만, 1990년 6월 서울대 남치주 · 충남대 고 김덕환 교수 등이 주축이 돼 출범한 한국전통수의학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질환에서 전통수의진료의 효과로 인해 동물애호가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중국 · 대만 · 일본 · 호주 · 미국 등지에서도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전통수의학회와 각국의 전통수의학회에서는 조만간 한방수의사 전문의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수의학의 침구법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한약제제들은 축산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EU가 2006년부터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2004년부터 우리나라도 사료용 항생제 사용금지를 검토해왔기 때문에 최근 5~6년 사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한방소재의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전통수의학의 이론은 전통의학(한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며,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동물의 생리와 병리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화발전시켜 실제 임상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한의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면, 전통수의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물론 근거중심주의 의학입장에서 보면, 전통수의학의 이론과 치료법에 대한 실험, 연구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론의 적합성과 치료효과의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둘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근골격계 질환과 뇌질환 치료에서의 증상완화, 치료기간 단축 등의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대량의 실험자료와 임상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고, 치료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신있게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코 쉽지 일이지만 현대과학 및 현대의학과의 교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좀 더 다양한 치료방법을 확보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기대를 해봅니다.

참고문헌

1. 윤영주 . 한의학 탐사여행. 도서출판 북